
대체 역사 SF의 젠더 정치학

— 복거일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비판적 독해

노대원 (제주대학교)

I. 서론: 대체 역사 SF의 미학과 정치

복거일의 등단작 『碑銘을 찾아서: 京城, 소우와 62년』(1987)은 1980년대 후반 한국 소설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결실 가운데 하나다. 이 소설이 출간되어 독자가 이루어질 당시는 대내외적인 사회 현실과 지식-문학 담론 모두 변화를 겪고 있던 과도기이며 혼란기였다. 국내적으로 군사독재 정부의 억압과 폭력에 대항한 사회적 변혁의 열망이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절차적 민주주의로 성취되었으며,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과 인간중심주의·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탈이념화가 본격적인 가속도를 얻고 있었다. 국내 문학장 또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또는 집단의 변혁 논리와 개인의 자유와 문화를 옹호하는 양측의 대립적 문학관이 논쟁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출간된 『비명을 찾아서』는 신인 소설가에 의한 도전적인 발상과 형식의 새로움, 그리고 박람한 지식의 충실한 반영으로 기존 소설에 안주해있던 독자들에게 충격과 기대를 안겨 주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이 소설의 낯선 형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가상 현실을 빌린 현실 비판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가? 출간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기존의 비평과 연구의 성과를 검토해보고 새로운 해석과 평가의 길은 없었는지 모색해보자. 먼저, 출간 당시에는 리얼리즘

과 모더니즘으로 양분된 당대 문학장에서 평가절하될 위기에 처한 이 소설을 옹호하여 정당한 위상을 부여하려는 한기의 비평 작업이 선행되었다.(한기, 1988)

이후의 초기 논의들은 주로 이색적이고 전복적인 형식의 충격에 반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글 문단이 낳은 최초의 포스트 모던 소설』(권택영, 1992를 김현숙, 2004, 385에서 재인용)이며 대체 역사 소설이라는 것이다. 소설가 스스로 이 소설에 대해 ‘대체 역사(代替歷史, Alternative History)’ 기법으로 창작했다고 밝혔으며, 실제 소설 안에서 1980년대 현재에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이라는 가상의 시공간 세계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독특한 시공간 배경에 초점을 둔 경우, 자연스럽게 역사소설이나 환상소설, 그리고 SF소설 등의 소설 장르론의 이론적 틀을 빌려와서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해당 장르론에 결부되는 실제와 허구, 역사와 소설 간의 관계를 논의한다든가, 현실 비판과 세대 풍자의 의미를 따져보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심화된 논의의 경우는 소설의 시공간과 동일성 문제나 현실 전복적인 환상성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형식과 내적 구조를 분석하면서 메타픽션이나 액자소설의 구조라는 점, 에피그램(epigram) 내지 모토(motto) 등을 포함한 상호텍스트성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논문들도 많았다. 이외에도 이 소설에서 기본적인 발상을 빌려온 SF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2002)와 의 서사 비교 분석을 행하고 있는 논문도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낯선 형식에 대한 해명을 『비명을 찾아서』 연구의 주요한 과제로 삼다보니, 정작 식민주의의 탐구와 그 해결이라는 소설의 핵심 주제 의식은 피상적으로 다루게 된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비평 이론이 도입된 뒤에, 이 소설의 탈식민성(postcoloniality)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¹ 이 소설의 도전적 발

1. 김동식은 『비명을 찾아서』가 식민성과 정치적 독재를 통합된 문제로 사고하여 비판한다

상과 형식적 충격이, 그리고 형식에 대한 학문적 의문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이 시기에 주제 의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소설 텍스트의 장르적 문법과 고유한 스타일은 소설적 세계관이나 스토리 내용과 실제로 긴밀하게 연동되는 것이므로 양자에 대한 고려 없이는 온전한 해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비명을 찾아서』에 나타난 주인공의 피식민지인으로서의 비애와 열패감, 그리고 반식민주의 의식과 민족주의적 각성·저항에 대해서도 탈식민주의 담론을 통해서, 또는 남성성 및 섹슈얼리티의 정치학에 주목하여 비판적으로 독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예술가 소설과 지식인 소설의 측면에서 주인공의 서사와 내면을 살펴보고, 주변화된 하위주체로 형상화된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복권시켜보는 일 또한 새롭고 독창적인 연구가 되리라 본다. 본고에서는 『비명을 찾아서』에 대한 기존 비평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삼아, 기존 논의들이 간과한 문제들을 새로운 논점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소설의 비판적 해석에 이르고자 한다. 『비명을 찾아서』의 한 에피그램(「도우꼬우, 쇼우와 61년의 겨울」)은 “역사는 씌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고쳐 씌어지는 것이다.(508)”라고 말하고 있다. 이 명제가 다시 이 소설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소설은 씌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설은 고쳐 씌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 현실과 환상의 탈경계로서 트랜스리얼리즘

『비명을 찾아서』의 소설적 세계관, 또는 스토리세계(storyworld)²⁾는

고 본다.

2. ‘스토리세계’는 인지 서사학자 데이비드 허먼(David Herman)의 용어로, 스토리가 펼쳐지는 세상을 의미한다. 서사학자들은 배경이 실제로 인물 및 사건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용어를 선호한다.(애벗, 2010, 314-315)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 조선의 지배 통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가상의 역사 또는 대체 역사적 상상력으로 구축되어 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이 전 대한제국 통감이자 일본 추밀원 의장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데 실패한다는 역사적 가정이다. 이후, 일본 제국은 온건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 실제 역사보다 훨씬 큰 번영을 구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역사와 허구적 가상 세계는 일제 강점기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실제 역사에서 비롯되었기에 단순한 허구로 간주하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史實)적 지식의 문학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명을 찾아서』는 식민지 시기의 가상적 연장에 그치지 않고,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세대 풍자하고 비판한 알레고리로 볼 수 있을 만큼 당대 현실을 충실히 재현해놓고 있다. 즉, 현실주의에 근거한 환상적 허구가 이 소설의 시공간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근간 원리이다.

제이 래딘은 미하일 M. 바흐친의 장르적 크로노토프(chronotope)에 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면서, SF 장르의 독자는 익숙한 시공간과 다른 크로노토프 유형을 빠르게 확인하는 전문가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주의 문학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시간과 공간의 균일성이기 때문에 사실주의 독자는 크로노토프에 덜 주목하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Ladin, 213). 주류문학의 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SF 독자는 크로노토프, 즉 문학적 시공간 인지에 민감한 독서 프로토콜(protocol)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자의 조건은 실제로 텍스트 독해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SF 작가 역시 새롭고 독창적인 크로노토프를 통한 세계제작(worldmaking)에 더욱 열의를 갖고 창작에 임해야한다.

사이버펑크 작가이자 수학자인 루디 러커(Rudy Rucker)는 ‘트랜스리얼리즘’(Transrealism)이라고 부르는 SF 글쓰기 스타일을 제안한 바 있다. 트랜스리얼리즘은 이른바 스트레이트 리얼리즘 소설의 대안이지만, SF의 유형이 아니라 전위 문학의 한 유형이다. 러커에 의하면, 환상과 SF의 도구는 리얼리즘 소설을 두껍게 하고 강화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시간 여행은 기억이고, 비행은 깨달음이며, 대안 세계는 개인 세계관의 엄청난 다양성을 상징하며, 텔레파시는 완전히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이 “트랜스”(Trans) 측면이다(Rucker, 1).”

이러한 논의에서 트랜스리얼리즘은 문학적 글쓰기의 한 유형인 동시에 SF 문학 장르의 유효한 독해 방식으로도 수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랜스리얼리즘에서 현실과 환상은 분명하게 구분되기보다 상호 의존적이며 그 경계는 무너진다. 트랜스리얼리즘은 현실성(reality)과 가상 현실성(virtual reality)을 역동적으로 중재하고 매개한다. 이러한 트랜스리얼리티(transreality)는 현실 세계와 허구적 서사 세계(텍스트 세계) 간의 이행 및 상호 연결 관계와 연속성을 의미한다(노대원, 70~71).

트랜스리얼리즘 문학으로서, 『비명을 찾아서』는 텍스트 상에서 ‘쇼와(昭和) 62년’의 1월에서부터 12월에 이르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주인공 기노시다 히데요(木下英世) 또는 박영세가 경험한 1년의 시간을 직선적 플롯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사적 의도는 무엇보다도 가상의 식민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everyday life)에 대한 관심이다. 중산층 계급의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주인공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위치와 맞물린 일상성의 부각은, 이 소설의 독자에게 보편적 공감의 기반이 된다.³

현대 환상소설의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주인공 스스로 그 놀라운 환상적 시공간에 대해서 별다른 놀라움과 망설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⁴은 여기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영업사원 그레고리 잠자가 갑충으로 돌연하게 변신하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일상과 세계에 대한 의문을 촉구한다. 소설 전체적으로

3. 김종희는 평범한 주인공 설정에 대해서 “너무 큰 부피의 비전형적 무대 설정에 휩쓸려 가버릴지도 모르는 소설의 줄거리를 현실 감각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데 유익하다(50).”고 평가한다.
4. “토도로프는 『변신』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블랑쇼와 카프카의 환상세계에 대한 사르트르의 분석을 토대로, 20세기 환상문학을 기이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화된 환상’의 세계로 규정하기에 이른다(심진경, 13).”

로 독자들의 세계와 거의 유사하지만 몇 가지 끔찍한 환상적 요소가 돌출적으로 제시되어, 그 요소를 산출시키게 된 원인인 해당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집중적인 성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거의 8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듯한 『비명을 찾아서』에서도, 그 사회가 ‘분단과 독재’로 요약될 수 있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한 식민지로 그려지고 있는 까닭은 이와 같다. 스토리의 표면상으로 식민지가 아닌 ‘지금-여기(now-here)’의 현실을 소설로 옮겨왔음에도 그것이 어째서 ‘반(反)유토피아(no-where)’ 또는 디스토피아(Dystopia)적 세계인 식민지로 형상화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

이 소설에서 발상을 얻은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가 대중적 SF를 지향했던 것처럼 SF소설의 하위 장르인 대체 역사 소설이 쉽게 택할 수 있는 대중적 서사 전개를 택하지 않고, 굳이 흥미와 박진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12개월에 따른 장·절 구성을 택한 이유는 이와 같이 현실에 뿌리박은 문학적 성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본다. 그러므로, 『비명을 찾아서』에 나타난 대체 역사의 환상적 상상력이나 메타픽션 및 지적 담론의 포스트모던적 배치 등의 형식적 측면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집약하고 있는 ‘식민성’에 대한 사유를 촉발하고 탈식민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에 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III. 식민지 예술가의 욕망과 남성 정체성 탐색

『비명을 찾아서』의 서사는 이미 여러 기존 논자들이 적절히 지적한

5. 김영성은 본 연구와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비명을 찾아서』에서 환상은 일차적으로 독자에게 역사가 허구적인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식민지성을 인식하도록 한다(55).”고 지적한다.

것처럼 ‘탐색담’(Quest story)의 구조를 이룬다. 소설의 표제가 지시하듯, 그 플롯 역시 주인공이 상실하고 망각한 것, 결핍되어 욕망하는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인 투쟁적 모험을 떠나기 전까지의 일상생활에서의 갈등과 고뇌의 내면 심리와 그 행적을 담고 있다.

탐색자 주인공 기노시다 히데요의 사회적 조건과 역할에 따라서, 그가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서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해볼 수 있다. 일단, 선행 연구자인 강운석의 분석적 논의를 따라가 보자. 도끼에를 향한 ‘사랑의 욕망’, 회사원으로서 ‘사회적 욕망’, 시인으로서 ‘예술적 욕망’과, 피지배민족 조선인 출신으로서 이러한 세 욕망들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역사적 욕망’ 등이다. 이러한 욕망들은 포괄하여 ‘동일성 획득의 욕망’, ‘자아 탐색의 욕망’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강운석, 298~300). 주인공인 기노시다 히데요가 남성 주체로서 사랑의 욕망과 사회적·예술적 욕망, 역사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과정은 ‘남성성(masculinity)’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주체의 심리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 또한 이 소설이 예술가 주인공의 자의식과 작품화 과정에 치중하는 예술가 소설의 경향이 있어서, 기존 연구 역시 주인공·주체 중심주의적 분석에 치중해 왔다. 이를 반성하여 주인공 중심 수사학에서 타자의 수사학(우찬제, 「타자의 수사학」)으로 분석과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특히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 담론의 도움을 받아, 남성성의 문제를 비판하여 소설 속에서 억압되고 주변화된 여성 하위주체(Subaltern)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타자의 수사학 텍스트 분석 방법은 독자로부터 소외된 타자에게까지 비평적 시야를 확대하여 결국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더욱 두껍게 비판적으로 읽을 사유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비명을 찾아서』의 첫 부분인 ‘일월’ 장의 1절은, 주인공 기노시다 히데요(木下英世)의 면도와 목욕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시간적 배경으로는 1년의 첫 번째 날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성찰해보고 미래의 계획을

정립해보면서 동시에 독자에게 인물(성격)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거울’에 제 몸을 비추는 행위는 자기 성찰적 행위로, 1년의 첫 번째 날의 성찰과 다짐의 서사인 동시에 주인공의 성찰적 지식인-예술가로서의 성향을 암시하고 있다. 주인공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의 갈등을 예비한다. 따라서 이 절의 심층 분석은 소설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된다.

기노시다는 서른 아홉 살로, 청년기에서 불혹의 중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남성이다. 39년이란 시간은 한국 현대사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기노시다의 삶의 조건은 한국 현대사와 사회적 배경을 함축하고 있다. 그는, 황군 장교 출신으로 〈한도우 경금속 주식회사〉의 과장 직위에 있는 회사원이다. 군부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명을 찾아서』의 세계와 1970~80년대 한국의 군사독재 정치는 정치 체제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이 소설은 세태 풍자적 기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억압적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일한 비판 의식으로만 형상화되지 않는다. 군 출신·중산층 계급·중년·남성·회사원·전통을 중시하는 시인인 보수적인 성격의 주인공에게는 기성 사회에 대한 안주와 동화의 욕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의 영위자라는 보편적-보수적 측면에, 자신과 사회를 성찰해야 하는 지식인-예술가라는 특수한 조건이 미묘하게 결합하며 주인공 내면 심리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기노시다가 면도를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신년을 맞이하여 성찰의 의미를 내포한 목욕재계의 의식을 치루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남성성 측면에서 재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면도라는 행위는 남성성의 확인인 동시에 남성성의 제거 의식이기 때문이다. 중년의 나이에 제 몸을 확인하는 행위 역시도 남성성과 연관된 일이다. 자기 육체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이 위축되어 가고 있지만 “군살은 한점도 없는 단단한 몸매(18)”에서 다시금 남성성을 재확인하고 시마즈 도끼에를 향한 사랑의 욕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군 장교 출신 남성으로서 군대 시절에 대한 향수와

군사 정치에 대한 혐오라는 이중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역시 남성성의 양가적 측면이다. 비판적 지식인들은 남북한을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히 ‘병영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와 김일성으로 표상되는 양측의 군사적 권위체계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이다. 이러한 병영사회에서 남성성은 폭력적으로, 부정적으로 구현되기가 쉽다. 소설 속의 세계 역시 남성적 병영사회로 권위와 부패가 특징인 사회로 파악된다.

기노시다가 남성 시인으로서 시적 영감을 얻는 대상 역시도 여성이다. 그는, 도끼예를 사랑의 욕망 대상이면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인 베아트릭체적 여성상과 유사하게 인식한다. “그녀를 사랑함으로써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애뜻한 사랑을 노래하는 풀빛 서정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소중하게 만든 점도 있었다(20).”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성은 예술적 욕망과 사랑의 욕망 등 주인공의 여러 욕망의 기호들을 고무하고 상호 매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인공은 소설 초반부부터 남성성에 강한 관심과 집착을 보이면서, 다른 사회적, 심리적 문제와 함께 풀뚝을 엮어나가고 있다. 남성성의 확인으로 인한 자신감과 남성성의 상실로 인한 열패감은 기노시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제국-식민지의 성적 표상과 남성성의 위기

소설 첫 부분에서 기노시다가 남성성의 조심스러운 확인을 통해 자기 삶과 욕망의 가능성을 투시해보았던 것과 달리, 그 이후에는 남성성 상실과 결부된 예술적, 사회적 욕망과 사랑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그의 민족적 존재 위치와 같다. 그는 개인적인 노력과 보수적인 생활로 안정적인 삶을 누려왔지만, 피지배민족으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비애와 열등감을 체험하는 수난자의 형상은 민족사를 수난사로 서술하는 근대 초기

의 국가 기술 방식과 유사하다.⁶ 민족의 공통적인 경험과 정서 중에서 수난이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문학자들의 지적도 기노시다의 조선인으로서의 비애감과 그에 따른 민족의식의 각성 과정을 해명하는데 좋은 열쇠가 된다. 한국 역사를 수난사이자 고난사로 서술한 함석헌은 한국사를 ‘수난의 왕녀’ 또는 로댕의 〈갈보였던 계집〉으로 비유하고 있다(함석헌, 436~438). 소설 속에서도 기노시다의 민족의식을 각성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역시 여성 하위주체의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다.⁷ 『비명을 찾아서』의 주인공의 의식과 서사 내용 또한 이러한 수난 의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욕망이 좌절되고 남성성이 상실된 주인공과 유린당한 여성의 몸과 국토의 형상은 소설 속에서 자주 목격된다. 각각의 욕망의 좌절과 남성성의 상실을 분석해보자.

서양이 문명의 중심인 지금 세상에서 구주어와는 체계가 전혀 다른 동양의 언어로 써서, 어쩔 수 없이 번두리 시골의 이름없는 시인으로 끝나야 했다. [...]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조선인이었다. 일본 안에서도 궁벽한 시골 문단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었다. 아직 중앙 문단의 문예지에 작품이 실리지 못한 처지였고, 일본시인협회 회원도 아니어서, 문부성(文部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인도 아니었다. 조선시인연맹에 가입한 거진 천 명이 되는 조선 시인들 가운데 시험의 회원인 사람들은 이백 명이 채 못되었고, 그나마 대부분은 내지 대학을 나와 내지 문단에서 추천을 받았거나 지면이 있는 내지인들이었다. 좋은 시만 쓴다면야 중앙 문단에 진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별로 껄념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장벽이었다(83).

6. 권명아(2002)는 ‘민족’에 대한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이 소설을 해석하고 있다.

7. 최근 한용운 시 연구 경향은 탈식민주의적 해석 방법이다. 엄성원(2006), 이민호(2006) 참고.

먼저 시인으로서의 주변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의 주변(동양)의 주변(조선)에서 창작 활동을 펴는 그는 주변부의 비애 의식을 체감한다. 그는 ‘자신을 시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자기 존재 확인이다. 더욱이 이것은 그의 보수적인 전통중시 예술관에 의해서 비판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노시다는 전위적이고 혁신적인 파괴를 옹호하는 현대적 시인이 아니라 ‘근대 하이쿠 시인’에 자신의 시업을 비교 평가해보는 보수적인 시인이다. 전통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제도적 예술의 권위를 좋든 싫든 인정하고 그 중심 안으로 편입하고자 노력하는 예술가에게, 자기 사회의 문화가 주변부이며 피지배 민족에 의해 흔적도 없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기노시다는 제국의 지배논리에 동화되어 중심으로 편입하려는 이 광수적 길과 제국의 논리에 저항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한용운적 길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궁극적으로 그의 문제는 내지인이 주인인 세상에 조선인으로 태어난 죄였다. 이번의 [승진 좌절은 마흔 해 동안 수없이 만났던 장벽 앞에서 다시 주저앉은 것이었다(104).

‘[...] 내가 잘못된 것은 “나는 조선인이지만, 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조선인으로 태어났다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조선인들을 외면하고서 살아온 것이다. 조선인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는 모두의 힘으로 함께 풀어야 하는 것이다(107).’

시인의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상징자본 경쟁이 문화 예술이라는 한정된 정신 영역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소수의 게임이라면, 직장 생활에서의 승진 문제는 생존과 생계가 달린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한계 조건으로 인해서 승진에서 좌절을 경험한 기노시다는 처

음으로 사회적 각성에 도달한다. 개인의 사회적 성공은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민족 출신과 같은 사회 구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각성은 그의 논리와 내적 결심 내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 역시 다분히 감정에서 그치고 있다. 금서 입수를 통한 조선어와 조선 문화의 고고학적 탐구라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에 불과하며 서사 상의 행동에서도 끝까지 개인적 영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상해로의 탈출·망명이 망명정부와의 접선을 예견케 한다는 점에서 비록 소설의 외부에서이지만 사회적 해결의 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의 좌절이 민족의식의 각성에 이르게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사랑의 욕망 내지 섹슈얼리티는 매우 일상적인 방식으로 기노시대를 자극하여 성찰하게 하며 결국에는 격렬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1) 하기가 세쓰꼬만 닷할 것은 없었다. 조선인 여자치고 내지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터였다. 여자뿐 아니었다. 조선인 남자에게 내지인 여자는 성공의 기념비였다. '나도 내지인 여자를, 그것도 화족(華族)의 무남독녀를 얻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꿈꾸었나? 만일 내지 명문의 딸이 아니었다면, 내가 도끼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되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59).

(2) 예쁘고 집안 좋은 내지 처녀를 얻는 꿈은 이천 오백만 조선 남자들이 지닌 마음의 성감대였다. 가장 은밀한 곳에 감춰진 가장 보드랍고 짜릿한 성감대였다. 잘 생기고 학벌과 집안이 좋은 내지 청년에게 시집가는 것은 이천 오백만 조선 여자들의 그것이었고(329).

(3) 그리고 브라우넬이 일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도 마음에 좀 걸끄

러웠다. 앤더슨과 도끼에의 경우도 그랬지만,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사이의 결혼은 대개 서양 남자와 동양 여자 사이에 이루어졌다. 내지인과 조선인 사이의 결혼이 대부분 내지 남자와 조선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듯이(345).

(4) 내지인 여자를 대할 때, 자신이 조선인 사내고 상대가 내지인 여자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상대가 매력적일수록 더욱 그랬었다. 아랫배를 가득 채운 묵직한 욕정과는 다른 더운 기운이 가슴을 훈훈하게 덮기 시작했다(365).

(5) “……것이 당연한 거요. 조선 여자들은 내지 남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누님, 그렇지 않아요?” 혀가 좀 굳어진 아오끼의 목소리가 들렸다(492~493).

위의 여러 인용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제국과 식민의 성적 표상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타난다.⁸ 실제의 제국과 식민지 현실의 남녀 연애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제 강점기의 한국 소설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복자-지배자-식민 본국과 피지배자-식민지의 차별적인 성적 표상이 남과 여로 규정된다는 것은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 동서양을 성적으로 규정짓는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⁹ 그것은 소설 속에서는

8. 박형지와 설혜심의 신역사주의적 학제간 공동 연구서인 『제국주의와 남성성: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은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명백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국에는 강력한 남성의 이미지를, 그리고 인도에는 연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부여했다고 논증하고 있다(김상수 310).

9.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의 역설적 상호 관계성 속에서 비서양(동양)은 서양이 비서양을 규정하는 방식을 재차용하는 복합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옥시덴탈리즘에서 서양과 대립되는 비서양(동양)의 표상은 (고귀한) 야만과 미개 혹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축조된다. 이런 억압받는 비서양(동양)의 표상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계급—특히 하층계

인용 (3)에서 재확인해볼 수 있다. 동서양 간의 차별적 정치 권력 관계가 차별적 남녀 간의 관계로 연결되듯이, 제국 강점기에는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그대로 일본 남자-조선 여자의 연애 관계로 나타나야 정상적인 면모를 갖게 된다. 제국과 식민의 차별 관계와 남녀 차별 관계가 자연스럽게 결합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이탈하는 남녀 관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된다. 동양과 서양 간 또는 제국과 식민 간의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기노시다의 사랑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국과 식민 남녀 관계의 사회적 모델이 확고할수록, 그 금기를 파기하려는 남녀의 욕망이 자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출신의 남녀가 식민 본국의 남녀보다 열등한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식민 본국의 상대 이성과의 결합하는 것은 성공의 징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인용 (5)에서처럼, 일본 제국주의의 남성적 폭력성을 체현하고 있는 아오끼 소좌의 발언과 그가 기노시다의 아내와 딸을 겁탈하고 성적으로 농락하는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제국주의적 남성성의 공격 앞에서 기노시다는 식민지인으로서 자신의 무기력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성이 무참히 훼손됨을 목격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도 잘 지적한 것처럼 일본 군인에 의한 아내 세쓰코와 딸 게이코의 수난은 철저히 유린당한 국토의 여성적 수난상과 겹쳐지고 있다. 강압적인 식민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적 대응도 할 수 없는 타자화된 여성 하위주체들을 대신해서 기노시다는 아오끼 소좌를 살해하는 극적인 사건을 일으킨다. 상실된 민족성과 함께 위축되었던 남성성을 살인이라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설 첫 시작 부분(‘일월’ 1절)에서 (면도라는 행위를 통해) 남성성이 상징적으로 거세되어 위축되고 있다가 결말에 이르러 (아오끼 소좌를 살

급, 여성, 아동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공임순, 31).

해함으로써) 재생되고 폭발하는 것과 대응된다. 또한 첫 부분에서 아오끼 소좌에 대한 간접적 언급을 통해 드러난 군사 정부에 대한 이중 감정을 완전히 지워내고 군국주의적 제국을 향한 항거를 시작한다. 이것은 기노시다 히데요가 박영세로 진정한 자기 이름, 즉 민족성을 되찾고 더 이상 제국 체제에 안주하는 식민지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1980년대의 한국의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독해하자면, 폭력적이고 부패한 군사독재정부의 권위체제에 대한 항거의 의미로 텍스트를 확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중심-주변의 경계 해체와 성찰

지금까지 주인공 기노시다의 욕망과 그 좌절, 그리고 남성성의 상실을 통해 그가 역으로 남성성과 민족성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그러나 그가 아오끼 소좌를 살해하고 상해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결말부는 작위성과 성급한 해결 방식 등 여러 미학적 결함 이외에도 작가 의식 내지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새로운 비판적 해석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아오끼 소좌를 살해하고 상해 망명 준비를 하는 기노시다의 행동과 의식을 따라가 보자. 아오끼 소좌 살해는 분명히 남성적 폭력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며, 시인과 회사원으로서 기존 체제에 순응해왔던 기노시다의 기존 행동을 뒤엎는 일이다. 이러한 남성성의 회복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그것이 폭력에 대항하는 폭력이지만 역시 그것으로 인해 폭력의 주체가 된다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가 억압적 제국 및 군사 체제에 폭력적으로 항거했지만, 결국 그는 예전에 그가 장교였듯이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김밥을 말고 꼼꼼하게 배낭을 채우고 등산객의 피크닉 기분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쾌한 심리를 표출할 정도이다. 회복된 남성성에 대해 기노시다가,

그리고 이 인물의 창조자가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증거한다.

‘그리고 보니, 면도기를 빼놨구나. 면도기는 필요 없지, 칼이 있으니까. 그럴 게 아니라, 차체에 수염을 좀 길러 봐?’ 그는 거울 속의 얼굴을 향해 싱긋 웃었다(505).

그 회복된 남성성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의 여성적인 생활과 상해 망명정부가 지시하듯 남성의 환상을 자극하는 낭만적 영웅주의와 멀지 않다. 그러나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이 소설의 남성성 문제를 비판하자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권명아가 지적하듯 『비명을 찾아서』는 민족 의식이나 민족감정을 소극적으로 투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기획을 내장하고 있다(권명아, 42). 박영세가 된 기노 시다의 상해 망명정부로의 여행은 근대 한국의 새로운 건국 신화의 수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도 나타나는 근대 민족주의의 서사가 어떻게 남성성과 결부되어 형상화되며, 이것의 한계는 무엇인가? 주인공의 남성성에 대한 열망과 중심부에 편입하려는 열망, 민족성을 회복하려는 열망은, 모두 같은 의미망의 체계로 얽혀진다. 주변부 의식에 심하게 빠져있었던 주인공의 평소 욕망을 생각한다면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주변적 조건을, 그 비애를 자각하는 자는 중심을 욕망하는 자이기 때문이다.¹⁰ 내면화된 식민주의적 근대성은 전체주의와 연결되어 남성성의 발현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여성을 끊임없이 타자화 한다(이민호 59). 상실된 민족성이 여성으로 표상되고 근대적 국가 건립이 남성성의 강화로 나타난다.¹¹

10. 흥미롭게도 북거일의 자전적 지식인 소설 『보이지 않는 손』의 후기에서 작가는 평론가 김현을 두고서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고 있다.

11. 제국주의, 과시즘, 근대 국가와 남성성(섹슈얼리티)의 긴밀한 관계는 조지 모스 등을 비롯한 국내의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한층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하자면, 그는 스스로 중심이 되기 위해서 중심을 파괴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노시다는 근대성의 욕망과 한계에 갇힌 자이다. 그가 아오끼 소좌를 살해했을 때 그는 이미 그를 대신해서 군인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제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제국주의의 방법을 모방하고 답습하게 된다. “넓은 만주”와 “더 넓은 지나 대륙”을 상상하는 것은 이러한 제국주의적 욕망의 증좌이다. 그의 저항적 민족주의 또는 반식민주의의 의미를 충분히 변호한다 하더라도, 탈식민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식민주의의 주체와 타자,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담론 체계 안에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식민주의의 해체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극복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여 이 구도를 해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엄성원, 36).

또한 소설 속에 그려지는 여성 인물들(하위주체)의 존재에 대해서도 반식민주의를 넘어서 탈식민주의적 상상력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 속에 주변화되고 타자화된 여성 인물들은 민족의 상실과 겹쳐지면서 식민지 억압을 은유하게 된다. 유린당한 처녀성으로 여성이 민족을 대신하여 신비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구제하고 강건한 남성적 민족국가의 회복과 건립을 염원하는 남성 영웅의 민족주의적 상상력이 포개어진다. 그러나 스피박이, 식민지 하위주체 중에서도 가장 하위에 위치한 식민지 여성은 제국의 남성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식민지 남성으로부터도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해보자.

기노시다는 평소에 아내 세쓰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으며, 그가 사상전향교육을 받을 시절 아오끼 소좌와 아내의 관계는 그의 상상 속에서서만 해명될 뿐이다. 결국 세쓰꼬는 식민지의 하위주체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여성들은 남성 주인공의 욕망의 대상이며 시적 영감의 원천이고, 식민지 조국의 은유로 나타난다. 그녀들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식민지배 담론과 민족 담론 사이에서 희생

된다. 그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발화할 수 없듯이 제 몸을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즉 어떤 남성과 관계 맺느냐에 따라 그 몸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이민호, 66). 결국 남성 인물의 편향된 인식에 의해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생명력 없는 존재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한계는 선구적이고 이색적인 소설 형식에 비해서 그 서사와 이념의 속살은 진취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국과 식민, 남성과 여성, 중심과 주변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에 갇혀서 중심의 자리만을 욕망한다면 기존의 중심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반성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복거일은 진정한 자유주의와 소수자의 논리를 옹호해왔던 지식인-작가로 탁월하고 독특한 문학적·지적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는 주변부 의식을 재성찰하지 못하고 근대의 신화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다윈주의, 우승열패의 신화에 경도되었다. 중심과 강자의 논리에 저항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의 담론에 수렴된 형국으로 보인다. 『비명을 찾아서』는 그의 초창기 문학 작업에서 중심과 주변 의식의 대결과 긴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적 고뇌가 근대성의 반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한 것은 복거일 소설의 한계로 인식된다. 더불어 이 한계는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모순을 통해서 이 사회 전체의 모순의 뇌관을 건드리는 창조적 대화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비명을 찾아서』의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은 독자들의 현실적 자리로 다시 호출되어야 한다.

텍스트

복거일(1987). 『碑銘을 찾아서: 京城, 쇼우와 62년』, 文學과知性社.

참고문헌

- 강운석(2004). 「혼재된 시공간과 동일성의 담론 -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 277-302쪽.
- 고종석(2007). 「식민주의적 상상력 - 복거일의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에 부처」, 『바리에떼: 문화와 정치의 주변 풍경』, 개마고원.
- 공임순(2005). 『식민지의 적자들: 조선적인 것과 한국 근대사의 굴절된 이면들』, 푸른역사.
- 권명아(2002). 「국사 시대의 민족 이야기 - 복거일, 『비명을 찾아서』」, 『실천문학』 11, 35-57쪽.
- 권택영(1992). 「최근 실험소설에 청진기를 댄다」, 『문학사상』 240, 327-331쪽.
- 김경수(2006). 「우리 시대 법과 소설의 운명에 대한 진단 - 복거일의 <보이지 않는 손>」, 『작가세계』 258, 398-410쪽.
- 김동식(2013). 「탈식민성을 사고하고, 포스트휴먼을 상상하는 과학소설들 —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와 듀나의 『태평양 횡단 특급』」, <list> Vol.20.
- 김명석(2004). 「SF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와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서사 비교」, 『문학과 영상』 4(1), 71-102쪽.
- 김상수(2005). 「문학과 역사의 만남을 통한 제국주의와 남성성의 해체 : 박형지 · 설혜심, 『제국주의와 남성성: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역사학보』 186, 307-314쪽.
- 김영성(2004). 「환상, 현실을 전복시키는 소설의 방식 - 복거일 『비명을 찾아서: 京城, 쇼우와 62년』의 경우」, 『한양어문』 19, 45-61쪽.
- 김원우(1987). 「사실주의 소설에 대한 한 반성 - 비명을 찾아서」, 『외국문학』 13, 338-346쪽.
- 김중희(1988). 「現代小說에 나타난 유토피아意識의 反語的 模型 - 복거일 장편소설 「碑銘을 찾아서」를 中心으로」, 『高風論集』 3, 47-59쪽.
- 김태환(2006). 「잊혀진 자들을 찾아서」, 『비명을 찾아서: 京城, 쇼우와 62년』, 文學과知性社.

- 김현숙(2004). 「복거일 『비명을 찾아서: 경성, 쇼우와 62년』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1, 384-408쪽.
- 노대원(2015). 「‘마음의 신체화’ 양상에 관한 인지 서사학적 연구 - 1960-70년대 질병-치유 서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 박노자 · 허동현(2005). 『열강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푸른역사.
- 심진경(2001). 「환상문학 소론」,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 엄성원(2006). 「한용운 시의 탈식민주의적 특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35-55쪽.
- 우찬제 편(1990). 『여린 잠 깊은 꿈: 예술가 소설선』, 태성.
- _____ (2001). 「소설의 카오스모스, 혹은 허구의 환상성과 복잡성: 보르헤스, 톨킨, 복거일의 경우」, 『문화예술』 265호, 38-45쪽.
- _____ (2005). 「타자의 수사학」,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6). 「자유주의자의 망명의식과 문자 세우기: 「보이지 않는 손」」, 『서평문화』 62, 한35-40쪽.
- 유인순(1992). 「한국예술가 소설연구: 작가주인공 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6, 109-160쪽.
- 이강은 · 이형숙(2000). 「'예술가 소설'의 개념과 접근방법 - 문학과 인간의 해체를 넘어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8, 65-92쪽.
- 이민호(2006). 「만해 한용운 시의 탈식민주의 여성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57-79쪽.
- 이영석(2005). 「제국과 남성의 이미지: 『제국주의와 남성성』」, 『영국연구』 13, 365-370쪽.
- 이정선(2004). 「『비명을 찾아서』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高鳳論集』 34, 137-149쪽.
- 한 기(1988). 「식민지적 상황에서의 정신의 모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넘어서기」,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작.
- 한민주, 『동아일보』, 2006.10.16.일자, “[남자 들여다보기 20선]<18>남자의 이미지”.
- 함석헌(2001).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 H. 포터 애벗(2008).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공역, 문학과지성사, 2010.
- Jay Ladin(1999). "Fleshing Out the Chronotope". Caryl Emerson ed. *Critical Essays on Mikhail Bakhtin*. Twayne Publishers.
- Rudy Rucker(1983). "A Transrealist Manifesto". *The Bulletin of the Science Fiction Writers of America* #82. Winter. <http://www.rudyrucker.com/pdf/transrealistmanifesto.pdf>

국문초록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는 대체 역사 SF소설로, 1980년대 후반 한국 소설의 중요한 문학적 결실 가운데 하나다. 이 소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낯선 형식에 대한 해명을 연구의 주요한 과제로 삼다보니, 정작 식민주의의 탐구와 그 해결이라는 소설의 핵심 주제 의식은 피상적으로 다루게 된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이 소설을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트랜스리얼리즘 문학으로 규정하고, 탈식민주의와 여성주의 담론을 결합한 비판적 해석을 제출한다.

대체 역사의 환상적 상상력이나 메타픽션 및 지적 담론의 포스트모던적 배치 등의 형식적 측면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집약하고 있는 ‘식민성’에 대한 사유를 촉발하고 탈식민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것이다. 주인공 기노시다 히데요가 남성 주체로서 사랑의 욕망과 사회적·예술적 욕망, 역사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과정은 ‘남성성(masculinity)’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 주인공은 ‘거울’에 몸을 비춰보며 자기 성찰과 향후 욕망과 갈등을 예고한다. 또한 먼도가 의미하듯 남성성의 확인과 제거의 의식을 치른다. 남성 시인으로서 그가 시적 영감을 얻는 대상 역시도 여성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남성성 상실과 결부된 예술적, 사회적 욕망과 사랑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그의 민족적 존재 위치와 같다. 먼저 시인으로서의 주변의식과 비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조선인 출신 회사원으로서 승진에서 탈락하는 좌절을 경험한다. 사랑의 욕망 내지 섹슈얼리티는 매우 일상적으로 그를 자극하여 성찰하게 한다. 제국과 식민의 성적 표상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타나듯이, 일본 여성 도끼예를 향한 그의 사랑도 좌절된다. 그는 아내와 딸을 성적으로 능략한 일본인 장교를 살해하여, 민족성을 회복하고 위축되었던 그의 남성성을 회복한다.

박영세가 된 기노시다의 상해 망명정부로의 여행은 근대 한국의 건국

신화와 다르지 않다. 내면화된 식민주의적 근대성은 전체주의와 연결되어 남성성의 발현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여성을 끊임없이 타자화한다. 상실된 민족성이 여성으로 표상되고 근대적 국가 건립이 남성성의 강화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근대성의 욕망과 한계에 갇힌 자이다. 한편, 여성 하위주체의 존재에 대해서도 반식민주의를 넘어서 탈식민주의적 상상력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여성들은 남성 주인공의 욕망의 대상이며 시적 영감의 원천이고, 식민지 조국의 은유로 나타난다. 그녀들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식민지배 담론과 민족 담론 사이에서 희생된다. 이러한 한계는 선구적 이색적인 형식에 비해 작가 의식과 이념이 진취적이지 않기에 발생한다. 제국과 식민, 남성과 여성, 중심과 주변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에 갇혀서 중심의 자리만을 욕망한다면 기존 중심의 폭력과 억압을 반성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

키워드 : 트랜스리얼리즘, 대체 역사, SF, 남성성, 탈식민주의, 여성주의

Abstract

Gender Politics in Alternative History Science Fiction: Critical Reading of Bok Geo-il's novel "Searching for the Epitaph"

Dae-won Noh (Jeju National University)

Bok Geo-il's *Searching for the Epitaph* is an alternative history science fiction, one of the important achievements in Korean literature in the late 1980s. Earlier studies on this novel have focused on elucidating the unfamiliar form. For that reason, these studies have had limitations that colonialism, the central theme of the novel was superficially treated. This paper defines this novel as transrealism literature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reality and fantasy, and presents a critical interpretation that combines postcolonialism and a feminist discourse.

In this novel, the formal aspects of the fantastic imagination of alternative history, the postmodern arrangement of metafiction and intellectual discourse are to stimulate the contemplation for the coloniality that is piling up contradictions in our society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ostcolonialism. The main character, Kinoshita Hideyo's struggle to satisfy love desires, social desires, artistic desires, and historical desires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blem of masculinity. Japanese women are also the objects that inspire poetic inspiration to him. However, later on, he experiences the frustration of artistic and social desires and love by loss of masculinity. It is similar to his position as a Korean dominated by Japanese empire the position of his national existence as a colonial Korean who is under empire control. Just as empires and colonies are represented as gender relationship, his love for Japanese female Tokie is also frustrated. He restores his shrunken ethnicity and masculinity by murdering a Japanese officer who harassed his wife and daughter. His trip to a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can be seen as a founding myth of modern Korea. Internalized colonial modernity regards the

manifestation of masculinity as the best value in connection with totalitarianism and constantly treats women as other. The lost nationality is represented as a woman,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nation appears as reinforcement of masculinity. In this sense, the main character is trapped in the desires and limitations of modernity. The existence of a female subaltern can also be seen from a postcolonial standpoint. In this novel, women are the objects of the male character's desire, the source of poetic inspiration, and the metaphor of the colonized country. Their bodies and sexuality are sacrificed between colonial and national discourse.

Keywords: Transrealism, Alternative History, Science Fiction, Masculinity, Postcolonialism, Feminism

Received: 15	January	2018
Reviewed: 7	February	2018
Accepted: 14	February	2018